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언어* -나와들어의 생활용어를 중심으로-

손성태
(배재대학교)

Son, Sung-Tae. 2011. The Korean language's traces in Nahuatl, ancient Mexican languag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3). 185-211. In this paper I introduced some linguistic proofs that the Aztecs, Mexican indigenous people, used the Korean language. In order to prove it, I studied first correspondence of vocals and consonants between Nahuatl and Korean, and explained the importance of morpheme correspondence in comparison of Nahuatl and Korean words. I compared five Nahuatl words like *macana*, *macahuatl*, *patollin*, *chinampa*, and *chinamitl* with corresponding Korean words. I analysed their morphemes and compared them with respect to their pronunciation and meaning. Afterwards I compared the process of combining morphemes of each word with that of corresponding Korean morphemes. I also compared them to see if some grammatical elements like suffix are equally used, if necessary, in the same position in the process of combining morphemes in two languages. As the results of these analysis and comparison, I can get to the conclusion that those five Nahuatl words are Korean because all morphemes of each Nahuatl word and their combining processes are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morphemes of Korean words and that the two languages used same grammatical elements in the same positions in combination of morphemes. It is impossible that these correspondences occur by chance. These correspondences are only owing to the fact that Korean ancestors moved to Mexico in an ancient times.

Key Words: Nahuatl, correspondence of vocals and consonants, morpheme correspondence, combination of morphemes, *macana*, *macahuatl*, *patollin*, *chinampa*, *chinamitl*,

* 본 줄고는 2011년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서 개최된 현대문법학회-대한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특강으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임. 특강 내용중 문화 부분은 언어학 학술지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언어 비교에 필수적인 자음과 모음의 음운 대응과 형태소 대응을 첨가하였으며, 분량의 과함으로 인하여, 지명 관련 부분도 생략하였음. '멕시코'의 국가 명칭을 '멕이코'라고 표기한 이유는 멕시코인들은 모두 그들이 '멕이'족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항상 '멕이코'라고 말하기 때문임.

1. 서론

16세기 예수교의 선교사 호세 데 아코스타(José de Acosta)가 처음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북쪽 베링해가 얼어붙었던 빙하기에 아시아에서 건너왔을 것이라고 말한 뒤에, 이 설(說)은 지금까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금과옥조처럼 반복되어 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지구상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던 약 1만~1만 5천 년 전에 얼어붙은 베링해협을 걸어서 건넜다고 한다. 그 이후 지구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고, 육지의 얼음이 녹아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베링해협의 육로는 물에 잠기고,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은 연결이 끊어져 1492년 신대륙의 발견까지 그 존재를 몰랐다.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 간 사람들은 특정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1만 년 전에 넘어간 원시 고아시아인이라고 지금까지 설명되어 왔다.

이 이론이 옳다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민족의 고유 풍습이나 언어가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1만 년 전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살던 고아시아인들은 아직 그 인구수도 얼마 되지 않은 극소수였고, 문화도 매우 미개하여 특정 민족의 고유 의복이나 생활 풍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직 각 집단의 개별 언어도 발달하지 못하여 오늘날과 같은 몽골인, 한국인, 일본인 등과 같은 각 민족으로 분화 발전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까지 연구를 통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특히 멕시코에 우리민족 고유의 많은 풍습과 언어를 발견하였다. 멕시코에는 옷놀이가 있었고, 고수레 풍습이 있었으며, 남자들은 상투를 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검은 갓을 모자로 썼다. 여자들은 한복을 입었고, 머리는 길게 길러서 목 뒤에서 쪽을 짓고 비녀를 꽂았다. 여자들은 얼굴에 붙연지도 찍었다. 언어적으로도 매우 많은 우리말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우리말은 단순한 단어 수준이 아니라, 구(句)도 발견되었고, 심지어는 문장 전체가 아예 우리말인 경우도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기원후 9세기의 신라 향가에서 나타나는 우리말의 언어현상까지도 멕시코 원주민 언어에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원주민 언어인 나와들어(nahuatl)와 우리말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두 언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소대응을 통하여 먼저 주목할 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 형태소 대응의 중요성을 살펴 본 후에, 멕시코 원주민들의 일상생활 용어를 몇 가지를 행태소 분석하여, 그것이 우리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으로, 첫째, 멕시코에 우리말이 어떤 식으로 남아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며, 둘째, 지금까지 알려진 고아시아인의 이동설과는 다르게, 아메리카로 건너 간 것은 고아시아인이 아니라 우리민족이며, 그 시기도 우리민족의 언어가 완전하게 형성된 기원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 고대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멕이족(아스텍족=아사달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820년경에 아스땅(아사달)을 떠나서 멕이코에 도착한 것은 11세기 초이다.

2. 언어의 일치와 음소 대응

신대륙 발견 이전에 멕시코의 아즈텍제국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나와들어(Nahuatl)라고 한다¹⁾. 이 언어 명칭의 유래는 신대륙발견으로 멕시코에 도착했던 스페인인들이 원주민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가?,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주민들은 ‘아스땅(Aztlán)에서 왔다, 나와다들이(Nahuatlātlī) 말한다’라고 대답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스페인 사람들은 ‘나와다들이 말한다’를 ‘나와다들이라는 언어를 말한다’로 인식했던 것이다.

오늘날 학자들이 나와들어 또는 나와어라고 부르는 ‘나와들어’는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기록된 원주민 언어, 즉 스페인어식 발음으로 된 원주민 언어를 말한다. 스페인어화 된 원주민의 말은 그들의 원래의 발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²⁾.

2.1 언어의 일치

같은 민족이라 함은 문화적 일치와 더불어 언어적 일치가 필수이다. 그런데 언어적 일치란 무엇을 의미할까? 언어적 일치라 함은, 즉 같은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학의 모든 측면에서 일치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즉 언어학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에서부터 형태소, 형태소의 결합 방법, 형태소로 구성된 어휘, 어휘들로 구성된 구 구조, 구로 구성된 문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 발음, 의미에서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일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음소이다. 멕시코 원주민이 사용했던 나와들어와 우리말의 일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어 대조 분석에서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음소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 먼저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두 언어의 일치 확인 과정은, 첫 째, 먼저 그 음소들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형태소들의 뜻과 발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둘째, 그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어휘나 구의 뜻과 발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셋째, 구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일치하여야 하며, 넷째, 우리말 고유의 문법소가 나와들어에서도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가 일치한다면, 인간 언어의 마지막 완성 형태인 문장의 구조, 발음, 뜻은 자연스럽게 일치하게 된다.

-
- 1) Nahuatlātlī(나와다돌이)- 이 말의 정확한 구성이나 뜻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이 말이 **Nahua+tlātlī**로 구성되어 있고, tlātlī가 ‘말, 언어’라는 뜻으로 판단하고, lengua nahua(나와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 일부 학자는 **Nahuatl+atolī**로 분석하고, atolī가 ‘말, 언어’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lenhua nahuatl(나와들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프랑스 학자 Launey(1979, p. 5)는 Nahuatlātlī를 ‘**langue claire**(분명한 말)’이라는 뜻이라고까지 주장했다.
 - 2) 1521년 아스텍 제국을 정복한 이후, 원주민들의 말이 스페인어로 표기되기 시작하면서도 나와들어는 발음의 변화를 어느 정도 겪었다. 대표적인 것이 자음 T 다음에 무조건 L이 들어가는 발음이 그 예이다. 이것을 오늘날 학자들도 ‘발음의 변질(Corrupción fonética)’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먼저 나와들어와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의 음소 대응부터 정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은 아스테카인들, 즉 멕이코 원주민의 말, 즉 그들의 원래의 발음이 아니라, 스페인인들이 그들의 말을 알파벳으로 차음하여 기록한 스페인어식 발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원주민의 말(발음)과 스페인어 발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본 연구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음소 대응은 바로 스페인어 음소와 우리말 음소를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가정은 옳지 않다. 멕이코 원주민의 원래 말과 스페인어 발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에 대하여 저명한 나와들어 학자였던 숄리반(Sullivan)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³⁾.

“The alphabet used for Nahuatl was introduced by the early Christian missionaries, using the orthographic conventions of sixteenth-century Spanish. This orthography represents the Nahuatl phonological system reasonably well, but it obscures or underrepresents some phonetic facts of the language.”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나와들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한 알파벳은 16세기 스페인인의 철자규범이었다. 이 철자법은 나와들어 음운체계를 잘 표현하기는 했지만, 일부 발음을 제대로 표현 못했거나 축소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 원주민들의 말과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표기된 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나와들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기록된 원주민 언어, 즉 스페인어식 발음으로 된 원주민 언어를 말한다. 스페인어화 된 원주민의 말은 그들의 원래의 발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스페인어는 잘 알려진 대로 경음만으로 발음하는 언어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말은 평음, 경음, 격음으로 구별하여 발음하는 언어이다. 우리말의 ‘달, 딸, 탈’을 스페인어로 표기하면 모두 ‘tal’로 표기되고, 그 스페인어식 발음은 [딸] 하나뿐이다. 필자가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하여 주장해 온 대로, 멕이코 원주민들이 우리민족임을 받아들인다면, 즉 그들의 말이 우리말과 같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원주민의 말을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차음하여 기록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필자는 본 연구의 내용 전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원래의 말에는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이 있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들어의 발음은 스페인어화 된 발음이고, 원주민들의 원래의 발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 사실은 본 연구

3) Sullivan (1988), 『Thelma D. Sullivan’s Compendium of nahuatl grammar』, P. 5

와 앞으로의 나와드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우리민족이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여, 스페인어화 된 나와드어 발음에서 원주민들의 원래의 발음을 복원한 후에, 우리말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음성적으로는 사라져 버렸다 할지라도 원주민들의 원래의 발음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경음으로만 표기된 나와드어를 우리말의 평음, 경음, 격음으로 확대한 후에, 그 형태소나 어휘가 사용된 문맥을 고려하면, 이 세 가지 발음 중에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체 어휘나 문맥을 통하여 평음, 경음, 격음 중 어느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필자는 ‘합치’라고 하겠다. 이 합치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al’이 죽었다 → [달]/[딸]/[탈]이 죽었다 → 딸이 죽었다.
└──────────┬──────────┘
합치 ↑

이 예문에서 스페인어 tal은 [딸]로만 발음되지만, 원주민이 우리민족이라는 전제하에, 즉 그들의 발음이 우리말 발음과 같다는 전제하에서 읽으면 [달], [딸], [탈]의 세 가지로 발음될 수 있다. 그리고 위 예문의 문맥과 함께 판단해 보면, 원래 원주민 발음은 ‘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합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와드어의 발음을 스페인어화 된 발음과 원래의 원주민 발음, 즉 복원한 후에 합치로 선택된 발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는 스페인어식 발음에, ‘()’은 복원 후 합치로 선택된 발음표기에, 그리고 ‘< >’는 그 뜻을 표기하는데 사용하겠다.

2.2. 모음소 대응

아스텍의 나와드어와 우리말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먼저 우리말과 스페인어의 음소 대응부터 보아야 한다.

| | | | | | | | | | | |
|------|---|---|-----|---|---|---|---|---|---|---|
| 우리말 |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
| 스페인어 | a | | (e) | | o | | u | | | i |

이 비교표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우리말과 스페인어 모음의 음소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우리말의 모음 ‘ㅏ, ㅑ, ㅜ, ㅣ’는 비교적 정확하게 스페인어로 표기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모음은 사실상 정확한 표기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음 ‘ㅓ’는 스페인어 모음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을 스페인어로는 Seul[세울]로 표기한다. 즉 모음 ‘ㅓ’를 ‘e[에,애]’로 표기한다.

스페인인들의 나와드어 표기를 보면, 우리 모음 ‘ㅡ’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이 모음

의 표기는 아예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사한 음(音)의 다른 모음(e, i, o)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나와들어와 우리말의 공통요소 가운데 하나가 복수형 접사 ‘들’이다. 스페인어로 표기된 나와들어에서 복수 접미사 ‘들’이나, 도구의 명칭에 사용되는 ‘털’을 모두 ‘tl [뜰]’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모음 ‘-’를 생략한 예이다. 우리 모음 ‘-’를 ‘e’나 ‘i’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지명으로 남아 있는 Tlatelolco (다텔올고) <다들 올 곳/필자역>과 Tlatilco (다틸고) <다들 곳/ 모든 사람들의 장소/필자역>를 보면, 복수형 접사 ‘들’을 tel 또는 til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모음 ‘o’로 표기한 예로는 보통명사 conetl [큰애뜰](큰 애들)<큰 아이들>에서 보듯이 모음 ‘-’를 알파벳 ‘o’로 표기하고 있다. 이 어휘는 형태소 구조가 ‘큰(con) +애(e)+들(tl)’인데, 초기 스페인 선교사들은 아스테카인들의 발음을 듣고서, ‘한 단어’로 착각하여 ‘아이’라고 번역하였다⁴⁾.

모음 ‘i’는 모음 ‘-’와 그 음(音)이 비슷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즉 생략되기도 하고 다른 모음으로 대체 표기되기도 했다. 생략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옥수수’를 뜻하는 centl[센뜰](센 털/필자역)이 있다⁵⁾. 나와들어에서 옥수수를 의미하는 어휘는 두 개 있다. 껍질을 깠 옥수수는 maiz[마이스](마있어)<맛 있어/필자 역>라고 했고, 까지 않은 옥수수는 centl(센 털)이라고 불렀다. 껍질을 까지 않은 옥수수에는 옥수수 수염, 즉 털이 많이 붙어 있다. 그리고 이 어휘도 ‘cen(센) +tl(털)’로 구성된 우리말임은 물론이다.

음(音)이 같은 우리말의 모음으로 ‘i’와 ‘h’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별 없이 가장 가까운 소리인 ‘e’로 표기된다. 그 외의 모음 ‘ɰ, ɰ, ɰ, ɰ’는 모두 스페인어 모음체계에서는 정확하게 표기할 수 없는 모음들이다. 이런 모음의 경우에는 이 모음이 사용된 어휘 전체의 발음이 멕이코 원주민들의 원래 발음과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스페인어 모음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스페인인들은 나와들의 호격(呼格)을 ‘e’나 ‘ye’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우리말 고어의 호격 ‘~여’를 표기한 것이다.(예, teteo-e/ teteo-ye (신성한 신이여)).

Sullivan(1988)은 나와들의 스페인어 표기 발음을 다음과 같이 발음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 4) Simeon의 사전에 따르면, 아스텍 제국에서 Conetl(큰애들)이라는 어휘는 주로 엄마들이 사용했다고 부연 설명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애/ 작은 애’라는 호칭은 주로 엄마들이 사용하고, 아버지들은 ‘큰 놈/ 작은 놈’을 주로 사용한다. 필자가 아스텍인들이 우리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언어적 일치뿐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언어가 사용된 ‘환경’까지 일치한다는 점이다.
 - 5) 나와들어 어휘 번역은 매우 문제가 많다. 이 문제는 금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16세기 초에 기록된 최초의 문헌들에서부터 관찰된다. 아스텍 정복 직후에 활동하기 시작한 최초의 스페인 신부들마저도 아스텍인들의 언어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여, 짐작으로 뜻을 기록함으로써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

| 나와들어 | ia | ie | (h)ua | (h)ue | (h)ui |
|------|--------------|-----------------|-----------|--------------|-----------------|
| 발음 | 야 [ja/ya] | 예/ 애 [je/ye] | 와 [wa] | 웨/ 왜 [we] | 위/ 귀 [(k)wi] |

여기서 주목할 것은 ‘hui’의 발음이다. 이것의 발음은 때때로 ‘ㄱ’소리가 들어간다고 미국의 저명한 학자 스와데쉬(Swadesh, Mauricio)가 밝혔다⁶⁾. 따라서 hui는 [귀/기]로 발음해야 하고, ui는 [위]로 발음해야 한다.

모음 비교에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은 모음 ‘ㅜ’와 ‘ㅜ’의 교체현상이다. 이 교체현상은 나와들어에서 매우 흔한 현상이며, 우리말에서도 적지 않은 예가 있다.

우리말 예: 나무/나모, 사둔/사돈, 쿵덕쿵덕/퐁닥퐁닥, 주물럭주물럭/조물락조물락,
 줄줄 새다/졸졸 새다, 쿵쿨 자다/꼴꼴 자다, 퉁퉁 붓다/통통 붓다,
 축축하게 젖다/촉촉하게 젖다, 풀풀날다/폴폴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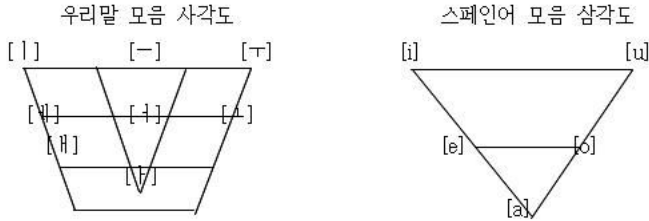
이러한 ‘ㅜ’와 ‘ㅜ’의 교체 현상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자어로 표기된 고구려(高句麗)의 국가 명칭이 장수왕 때부터 이미 우리말로는 ‘구리(句麗)’라고도 하고, ‘고리(高麗)’라고도 표기한 것이다⁷⁾.

그런데, 우리말의 ‘ㅜ/ㅜ’에 대응하는 나와들어의 스페인어 표기 ‘o[오]’와 ‘u[우]’도 매우 많은 어휘에서 아무런 구별 없이 교체되면서 사용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들어를 듣고 받아 적었던 16세기의 스페인 신부들이 원주민들의 ‘ㅜ’와 ‘ㅜ’의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듣지 못했다. 1645년 나와들어 문법서를 쓴 카로치(Carochi) 신부도 “모음 ‘o’를 발음할 때, 때때로 너무 폐음(閉音)화되어 모음 ‘u’의 발음과 혼동되기도 한다”고 하였다⁸⁾. 나와들어의 예는 매우 많다.

나와들어 예: Colhuacan(콜와칸)/ Culhuacan(쿨와칸), Tlacopan(다코판)/Tlacupan(다쿠판), Texcoco(태흐고고)/ Texcuco(태흐구고), Teo(태오)/ Teu(태우)

6) Swadesh, Maurico, 『Estudios sobre Lengua y Cultura』, Acta anthropologica 2a, Epoca II-2, 1960, p. 52
 7) 高麗를 우리는 ‘고려’라고 발음하지만, 중국어 발음은 ‘고리’이다. 麗를 나라이름에서는 ‘리’로 발음하도록 기록한 중국 문헌도 있다. 예를 들어 ‘사기(史記)’ 권 6이나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원래 발음을 중국 한자로 음차한 표기로 보인다.
 8) Carochi, Horacio, 『Arte de la lengua mexicana』, 1645년,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1983년판, 2쪽 왼쪽. “usan de o, algunas veces tan cerrada, y obscura, que tira algo la pronunciación de la u.”

우리말과 나와들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음 ㅏ/ㅓ의 교체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16세기 멕이코로 건너 간 스페인신부들의 시각, 즉 스페인어의 시각에서 원주민의 말, 즉 우리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말 모음 사각도와 스페인어 모음 삼각도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비록 우리나라 국어 음운론에서는 모음 ‘ㅏ’가 개음(開音)과 폐음(閉音)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음으로 보고 있지만, 이 도표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말의 모음 ‘ㅏ’가 스페인어 모음 ‘o’보다는 발음 위치가 더 높다는 것, 즉 더 폐쇄음화 되어 모음 ‘ㅓ’에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음 ‘ㅏ’는 모음 ‘ㅓ’와 같은 원순모음-입술을 둥글게 하고 발음하는 모음이 된다. 그러나 스페인어 모음 ‘o’는 원순이 아닌 평순모음이다. 영어의 알파벳 ‘o’도 평순이다. 따라서 스페인어 사용자나 영어 사용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ㅏ’ 발음을 일반적으로 ‘u’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신대륙 발견 직후 원주민들을 만난 스페인 신부들도 바로 이 혼동을 경험했다. 즉 그들은 원주민들의 발음 ‘ㅏ’를 받아 적을 때, 알파벳 ‘o’로 적어야 할 지 ‘u’로 적어야 할 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우리말 모음 사각도와 스페인어 모음 삼각도의 비교는 나와들어 모음 ‘o’와 우리말 모음 ‘ㅏ’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 즉 나와들어가 멕이코로 건너 간 원주민족이 사용하던 우리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이다. 이 전제는 앞에서 이미 보았던 공통의 예들, 즉 우리말 모음 ‘ㅏ/ㅓ’의 교체현상과 나와들어 모음 ‘o/u’의 교체현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전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나와들어 모음 ‘o’와 우리 모음 ‘ㅏ’가 정확하게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발음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이는 나와들어를 사용하던 멕이코 원주민들이 원주민족임을 증명하는 음성·음운론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모음 ‘ㅏ/ㅓ’ 교체 현상이 몽골어에도 있었다고 한다⁹⁾. 역사

9) 몽골어에는 이것 뿐 아니라, 자음 /ch/와 자음 /z/도 구별이 되지 않았다 (김득황, 『만주족의 언어』, 대지문화사, 1995, 18쪽). 그런데 이 두 자음의 혼용도 나와들어에 보인다. 이렇게 몽골어의 언어적 잔재가 우리말이나 나와들어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필자는 몽골인들의 언어적 영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여-고구려계 언어가 몽골어와 공통점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말과 나와들어에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적으로 우리민족의 언어를 부여-고구려계 언어, 고조선계 언어, 삼한계 언어로 구별해본다면¹⁰⁾, 우리말의 모음 'ㄱ/ㄷ' 교체 현상은 결국 부여-고구려계의 언어의 잔재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몽골족은 우리의 부여 고리족과 깊은 역사적 관계를 맺으며 함께 발전해 왔기 때문에, 두 민족 간의 언어적 교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자음소 대응

맥이코의 나와들어와 우리말을 비교하려면, 먼저 두 언어의 음운의 기본적 특징을 알아야 한다. 언어의 음운적 특징은 음소의 종류, 조음위치, 조음방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게 된다. 우리말 자음의 음소 종류와 조음위치에 대하여 최명옥(2004)은 다음과 같이 도표화하고 있다¹¹⁾. 아래 '표1'은 최명옥이 제시한 우리말 자음소 표이다.

표 1. 우리말 자음소

| 조음방식 | | 조음위치 | | 양순음소 | 치경음소 | 경구개음소 | 연구개음소 | 성문음소 |
|------|------|----------------------|----------------------|------------------------|------------------------|-------|------------------------|------|
| | | 파열음소 | 평(平) 경(硬) 격(激) | ㅍ(p) ㅂ(p') ㅃ(ph) | ㅌ(t) ㄷ(t') ㄸ(th) | | ㄱ(k) ㅋ(k') ㆁ(kh) | ㅎ(?) |
| 자음소 | 파열음소 | 평(平) 경(硬) 격(激) | | ㅅ(s) ㅆ(s') | | | | ㅎ(h) |
| | 파찰음소 | 평(平) 경(硬) 격(激) | | | ㅈ(č) ㅉ(č') ㅊ(čh) | | | |
| | 비음소 | | ㅁ(m) | ㄴ(n) | | ㅇ(n) | | |
| | 유음소 | | | ㄹ(l) | | | | |
| 활음소 | | | | | j | w | | |

(평(平) = 평음소, 경(硬) = 경음소, 격(激) = 격음소)

이 표를 보면 파열 양순음에는 ㅍ(p), ㅂ(p'), ㅃ(ph)가 있고, 파열 치경음에는 ㄷ(t), ㄷ(t'), ㄸ(th)이 있으며, 파열 연구개음에는 ㄱ(k), ㅋ(k'), ㆁ(kh) 이 있고, 파찰 경구개음에는 ㅈ(č), ㅉ(č'), ㅊ(čh)이 있다. 이 세 쌍으로 된 각 음소그룹은 평음소, 경음소, 격음소

10) 고조선이 패망할 때 지배집단과 상당수의 백성들이 한반도 내륙 깊숙이 이주하였고, 삼한 중 특히 진한의 통치자가 되었다.
 11) 최명옥, 『국어 음운론』, 38쪽: 음성·음운론에서는 음소는 / / 로 표기하고, 음성은 []로 표기하지만, 음소와 음성을 굳이 구별하지 않을 경우에는 ' ' 로 표기한 최명옥의 예를 본 연구에서도 따르기로 한다. 다만 음성, 즉 발음의 구별에서 스페인어식 발음은 []로 표기하고, 우리말식 발음은 ()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음소도 본 연구에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로 구별된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스페인어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이 없고, 오직 경음으로만 발음된다. 이를 킬리스(Quilis/1964)가 제시한 스페인어 자음소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¹²⁾.

표 2. 스페인어 자음소

| | 양순음 | 치순음 | 치경음 | 치근음 | 치간음 | 경구개음 | 연구개음 |
|---------|-----|-----|-----|-----|-----|------|------|
| 파열음 | p | | t | | | | k |
| 마찰음 | | f | | s | θ | | |
| 파찰음 | | | | | | c | |
| 비음 | m | | | n | | ɲ | ŋ |
| 실측음(유음) | | | | l | | ʎ | |
| 단순진동음 | | | | r | | | |
| 복수진동음 | | | | ʝ | | | |
| 반자음 | | | | | | j | w |

‘표1’과 ‘표2’를 대조해 보면, 우리말의 치경음은 스페인어에서는 치경음과 치근음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말에는 없는 치순음과 치간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우리말의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이 스페인어에는 없고, 모두 경음으로만 발음한다는 점이다. 우리말의 파열 양순음 ‘ㄷ, ㅃ, ㅌ’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파열 양순음은 ‘p’밖에 없고, 파열 치경음 ‘ㄷ, ㅌ, ㅊ’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음소는 ‘t’밖에 없으며, 파열 연구개음 ‘ㄱ, ㅋ, ㆁ’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음소는 ‘k’밖에 없으며, 파찰 경구개음 ‘ㅈ, ㅊ, ㅊ’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음소는 ‘c’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대응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말 | | 스페인어 |
|---------|--------|---------------------|
| ㄷ, ㅃ, ㅌ | ← 대응 → | p [p] |
| ㄷ, ㅌ, ㅊ | ← 대응 → | t [t] |
| ㄱ, ㅋ, ㆁ | ← 대응 → | /k/ [k] ⇨ c, qu, cu |
| ㅈ, ㅊ, ㅊ | ← 대응 → | /c/ [c] ⇨ ch, tz |

스페인어 자음소 p는 우리말 [p]으로 발음되고, t는 [t]으로, c는 뒤에 모음 a, o, u가 오면 [k]으로 모음 e나 i가 오면 [c]으로 발음된다. 또 스페인어 자음 s는 [s]으로 발음

12) 이 표는 Quilis가 제시한 스페인어 자음소 표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음소만 간추려 표시했다. 또 발음 방법에 따라서 유성, 무성으로 구별되는데, 이것도 여기서는 무시한다. 이유는 지금부터 관찰하려는 나와들 어의 음성 표기를 한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은 이러한 음성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러한 구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z는 거의 [쓰]로 발음된다.

스페인어에서 음소 /k/를 실현하는 알파벳은 모음 a, o, u 앞에서는 c이고, 모음 e, i 앞에서는 qu 또는 cu라는 것과, 파찰 경구개음 /c/를 실현하는 알파벳은 ch이고, 나와들어 표기에서는 많은 경우에 tz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¹³⁾. tz는 [쓰]에 가까운 발음으로서 스페인어 발음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 이중자음은 나와들어 표기에서 때때로 ch와 혼동하기도 하였다. 즉 tz와 ch는 [쓰]으로도 발음되기도 하고, [츠]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대응관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말 자음소의 세 가지 발음 구별이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차음하여 표기하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나와들어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와들어를 연구한 모든 연구에서 나와들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오류를 범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들어가 우리말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 표기로 인하여 사라져 버린 위의 세 가지 발음 구별- 평음, 경음, 격음-이 복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말 자음소가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표기되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이 신대륙 발견직후부터 나와들어를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옮겨 적을 때 반드시 나타났을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 학자들이 나와들어를 이해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 왔다. 나와들어 문헌에서 자주 발견되는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표 3. 나와들어 표기와 발음

| 나와들어(언어 혼란 이후) | 스페인어 발음 | 고전나와들어(언어 혼란이전) | 원주민 원래 발음(추정) | 우리말 |
|----------------|--------------|-----------------|---------------|--------------|
| tlachota | [틀랠초따] | tachota [따초따] | 다조타 | 다 좋다 |
| tla/ ta | [틀라]/ [따] | ta [따] | 따 | 따(=따, 땅의 고어) |
| tlatla/ tata | [틀라틀라]/ [따따] | tata [따따] | 타다 | 타다 |

‘표 3’에서 예시한 세 개의 어휘는 나와들어에 자주 나오는 우리말이다. 필자가 이 표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 어휘의 표기와 발음의 변화 과정이다. 이 어휘들의 어두에 사용된 tla[틀라]가 고전 나와들어, 즉 원래의 원주민 언어에서는 ta였고, 그 발음도 각각 (다), (따), (타)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복원과 합치의 과정이다. 이것을 초기 스페인 선교사들이 스페인어로 차음하여 기록하는 과정으로 설명해 보자. 원주민들의

13) 하비에르 클라비헤로(Xavier Clavijero/ 18세기 나와들어 학자이며 카톨릭 신부,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자람)에 따르면, 나와들어는 때때로 tz와 ch를 혼용할 뿐 아니라, ch와 x[츠]도 혼용했다. Xavier Clavijero, Fr., 『Reglas de la lengua mexicana con un vocabulario』, 18세기 문헌, UNAM, 1974년, 17쪽

(다), (따), (타)로 구별된 세 가지 발음을 들은 15~16세기 스페인 신부들은 그 차이점을 무시하고 모두 ta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어에는 이것을 구별하여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기록을 접하게 된 후세의 학자들은 그 원래 발음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모두를 스페인어 발음법에 따라서 [따]로 읽어버리게 되었다. 또, 여기에 더하여 정복전쟁 이후에 발생한 언어혼란으로 자음 T다음에 무조건 L이 들어가서, 모든 ta가 tla로 변했고, 그 발음도 [틀라]가 되어 버렸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그 언어 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 지명이나 문헌에서는 원래의 ta가 살아남은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듯이, ‘땅’을 의미하는 어휘가 tla도 있고 ta도 있으며, ‘타다’를 의미하는 어휘도 tlatla도 있고 tata도 있다¹⁴⁾. 좋은 일례로, 멕이코시티 주변의 지역 명칭으로서 멕이코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Tacuba[따꾸바]라는 지명의 변천과정을 들 수 있다. 이 지명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표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Tlacopan > Tlacuba > Tacuba¹⁵⁾

이 지명에서 고전 나와들어 시기, 즉 아스텍제국 정복 이전에는 TL이 T였으므로, ‘Tacopan(따고판) > Tlacopan(틀라고판)’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지명도 우리말로 구성된 어휘이다. 이 지명은 ‘Ta(따) + co (고) + pan(판)’으로 구성되었다. 이 세 가지 어휘는 모두 ‘장소’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Ta(따)는 ‘땅’의 고어이고, co(고)는 ‘곳’에서 받침소리 ‘ㄱ’이 탈락한 것이며, pan(판)은 ‘별판, 들판, 모래판’의 ‘판’이다. 한 지명에 장소를 뜻하는 어휘가 여러 개 사용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멕이코 지명의 또 하나 공통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구들재 고개, 구들티 고개, 한계령 고개, 한티재’ 등에서 중복 사용된 ‘재/ 고개/ 티/ 령’은 모두 장소를 뜻하는 어휘이다. 이 지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어 혼란기를 겪은 뒤에 T>TL로 변했던 형태소가 다시 T로 복원되었다. 지명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이 Tla[틀라]라고 하기 보다는 Ta[따](다)라고 계속해서 발음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명은 언어 변화에서 가장 잘 안변하는 경향이 있다. 음소 p가 b로 변한 것은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유성음화 때문이고, 마지막 음절의 pan(판)에서 n이 탈락한 이유는 스페인어 발음 원리 때문이다. 스페인어에서는 받침소리가 없고 발음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지명은 Tacuba[따꾸바]가 되었다. 결국 원주민의 원래

14) 우리말에서 서술종결어미 ‘-다’는 18세기 이후에 정착되었고, 그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와들어에서도 이 어미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극히 일부 동사에는 사용되었다. 필자가 확인한 경우는 다음 3 개의 어휘이다. itta(있다), tlachota(다 좋다), tata/tlatla(타다)

15) 앞의 두 가지 표기는 Roldán Dolores, 『Códice de Cuauhtemoc, Biografía』, 1984, p. 46 & 53에 나온다. 마지막 표기는 현재 멕이코에서 사용하는 표기이다.

말 ‘따곳판’이 ‘따꾸바’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발음 종류의 축소화로 사라져 버린 가장 중요한 우리민족의 어휘중 하나가 ‘태백’ 일 것이다. 이 어휘도 멕시코로 건너간 우리민족이 매우 많이 사용했다. 스페인 신부들은 그것을 스페인어 알파벳 체계에 따라서 tepec이라고 기록했고,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는 받침소리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 tepe라고도 기록했다. Tepec은 스페인어 발음 체계로 읽으면 [때뻑]이지만, 우리 국어 발음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대백/ 태백/ 때백/ 대뻑/ 태뻑/ 때뻑)으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뜻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말과 ‘합치’하도록 읽을 수 밖에 없다. tepec을 우리말 발음에 맞게 ‘복원’하여 읽으면, 위의 여섯 가지 발음이 나오고, 우리말에는 ‘태백산’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므로, 이 어휘를 우리말에 존재하는 산의 명칭에 ‘합치’하도록 ‘태백’으로만 읽어야 한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복원’과 ‘합치’의 과정이다.

또 한 가지 미리 생각해 둘 사항으로는, 아스텍 제국을 정복한 직후에 원주민들의 말을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차음(借音)하여 적었던 -정확한 의미에서 이것을 나와들어라고 한다- 최초의 사람들은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나 선교사, 그리고 그 후에 이 선교사들에 의하여 스페인어 교육을 받고 자란 원주민 역사가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은 음성·음운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과, 기록 도구로 사용된 것이 음성학적 부호가 아니라 스페인어 알파벳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 째, 스페인어에는 원래 알파벳 k와 w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말의 파열 연구개음 ‘ㄱ, ㅋ, ㆁ’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다른 언어로 차음하여 기록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래의 음(音)에 가장 가깝게 표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우리말의 파열 연구개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은 이 음소들 뒤에 모음 ‘i, ɛ, ɛ’ 등이 오면 ‘qu’ 또는 ‘cu’로 표기할 수밖에 없고, 그 밖의 모음이 오면 알파벳 ‘c’로 표기하는 것이었다. 둘째, 우리말의 파찰 경구개음 ‘ㄷ, ㅌ, 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은 스페인어 알파벳으로는 ‘ch’이다. 그리고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나와들어를 기록할 때 많이 사용한 자음소 ‘tz’도, 위 도표를 고려해 보면, 이 파찰 경구개음에 가장 가까운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파찰 경구개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때로는 ‘ch’를 사용하고 때로는 ‘tz’를 사용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말의 모음 ‘e, ɛ’는 스페인어에는 사실상 대응 음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생략하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서 ‘e, o, u’나 심지어 ‘i’까지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을 앞에서 예를 통하여 보았다.

2.4. 형태소 대응

지금까지 역사 비교 언어학에서 어떤 두 언어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방법은 음운대응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대응이 나와들어와 우리말의 일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 두 언어의 비교에는 형태소나 어휘, 혹은 구나 문장

의 대응 비교가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이유는 음운대응은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의 언어들 사이에 일치하는 형태소가 많지 않을 때, 그리고 특히 그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들 가운데 같은 어휘가 거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말 ‘ㄱ’음과 일본어의 ‘ㄱ’음이 같다는 것을 음운대응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 우리말 | 일본어 |
|--------------|------------------|
| 감 [kam] | 과일 = かき [kaki] |
| 갓 [kas] | 傘 = かさ [kasa] 우산 |
| 거미 [komi] | = くも [kumo] |
| 것 [kot] | = こと [koto] |
| 같(다) [ka-ta] | = ごとし [gotosi] |

이 음운대응에서 보듯이, 기준은 ‘의미’이다. 즉 같은 뜻을 가진 우리말과 일본어 어휘들을 비교하여 보면, 각각의 어휘가 전체적으로는 같지 않지만, 그 시작하는 첫 음(音)인 [k]소리, 즉 ‘ㄱ’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운대응을 통하여 두 언어의 동일계통을 확인하는 방법론은 이렇게 일치하는 음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득력이 강해진다. 그러나 어떤 두 언어 사이의 이러한 음운대응으로 찾아낸 음소들의 일치성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형태소 일치나 어휘나 구(句) 또는 문장의 일치에는 그 정확성이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과 일본어가 이와 같은 음운대응으로 찾아낸 ‘같은 음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말과 나와들어 사이에 확인되는 ‘형태소, 어휘, 구(句), 문장’의 일치가 보여주는 정확성에는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문장의 일치는 그 문장에 사용된 구(句)들의 일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구(句)들의 일치는 어휘의 일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어휘의 일치는 형태소들의 일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형태소들의 일치는 음소들의 일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음운대응으로 찾아낸 음소들의 일치가 아무리 많아도 형태소들의 일치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어휘의 일치는 형태소 일치보다 더 정확성이 높으며, 구(句)의 일치는 어휘들의 일치보다 더 정확성이 높고, 문장의 일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언어적 일치이다. 예를 들어, 나와들어의 전쟁 도구 명칭에는 macahuitl(마까기틀)이라는 몽둥이가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명칭의 형태소 구조는 다음과 같고, 그 각각의 형태소는 다음의 우리말 형태소에 일치한다.

나와들어: macahuitl(마까기틀) = ma(마) + ca(까) + hui(기) + tl(틀)
 우리말: 막 까기 틀 = 막 + 까 + 기 + 틀

나와들어, 즉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표기된 멕이코 원주민어는 스페인어 발음체계가 받침

소리를 표기하지 않으므로, 첫 형태소 '막'의 'ㄱ'음이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나와들어 무기 명칭이 우리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마까기틀'이 우리말 '막 까기 틀'과 발음과 뜻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도의 일치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첫째, 나와들어와 우리말에서 사용된 9개의 음소들이 음운대응으로 일치해야 한다.

m=ㅁ, a=ㅏ, c=ㄱ, a=ㅏ, hu=ㄱ, i=ㅣ, t=ㅌ, l=ㄹ, t와 l사이에 표기되지 않은 소리=ㅡ

둘째, 이 음소들이 결합한 각 형태소들이 일치해야 한다. 형태소들의 일치는 발음과 뜻의 일치를 말한다.

ma=마/막, ca=까(다)/ 때리다, hui=기(동사의 명사화 접사), tl=틀 (도구)

셋째, 이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사구가 일치해야 한다. 명사구 일치는 각 형태소들의 결합 순서가 일치해야 하고,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각 형태소들의 뜻의 결합이 일치해야 하며, 그 결합 과정에 사용된 기능어(문법소)들의 사용 위치와 기능이 일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명사구의 구조와 뜻이 일치해야 함을 말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ma = 막
 ca +hui = 까(다) +기(명사화 접사) → 까기 (때리기)
 ma +cahui = 막 까기 (막 때리기)
 macahui +tl = 막 까기 + 틀 → 막 까기 틀 (막 때리는 도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말에서 명사구와 명사구를 연결할 때 기능어 '이'가 접사로서 사용되는데, 앞에 오는 명사구가 모음 'ㅣ'로 끝나면 이 기능어가 생략된다는 사실이다.

영순 + 옷 → 영순+이+옷 → 영순이 옷
 갑돌 + 돈 → 갑돌 +이 +돈 → 갑돌이 돈
 영미 + 책 -----→ 영미 책
 막까기 + 틀 -----→ 막까기 틀

위 형태소들의 결합 과정에서, 우리는 나와들어 'macahui +tl'의 결합 과정에서도 우리

말과 똑같이 기능어 'i(=이)'가 사용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앞에 오는 명사구 'macahui(마 까기)'의 마지막 모음이 'i(=이)'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도의 일치는 단순한 음운대응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형태소 대응 비교가 나와들어와 우리말의 일치성 연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영어와 우리말에서 우연히 비슷한 예로서 자주 거론 되는 것이 영어 어휘 many(매니)와 우리말 '많이'이다. 이 두 어휘는 외적 발음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게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어휘를 형태소로 분석하여 대응 비교 해 보자.

영어: many [meni] 매니
우리말: 많이 [mani] 마니

언뜻 보기에 음소들과 그 결합구조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말의 '많이'는 ' 많+이, 게, 아서→많이, 많게, 많아서'에서 보듯이, ' 많다'는 의미는 ' 많'에 있고, 어미 '이'는 아무런 뜻이 없는 기능적 요소로서, 형용사 ' 많다'를 부사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같은 방법으로 영어 many를 'ma+ny'로 나누어 보면, 'ma'에는 ' 많다'는 의미가 없고, 'ny'도 부사화 기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 많이'는 부사이지만, many는 형용사이다.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많 + 이
 (' 많다'의 뜻) + (부사화 기능)
ma + ny (또는 man +y)
 (뜻없음) + (아무런 문법적 기능 없음)

이렇게 형태소 대응 비교를 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한 어휘들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매우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확성은 단순한 음운대응으로서로는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나와들어와 우리말의 일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형태소 대응 비교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상생활 속의 우리말

아스텍아인들의 일상생활 속의 많은 용어들이 우리말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우리말이다. 여기서는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무기의 명칭, 그들이 즐겼던 오락 명칭, 그리고 식량 생산을 위해 만들었던 물위에 떠다니는 뗏목으로 만든 밭의 명칭을 대표적으로 형태소 분석

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로 한다.

3.1 Macana[마까나](막까나), <막 까는 것>

Macahuitl막까기틀, <막 까는 도구>

신대륙 발견 이전의 멕이코 원주민은 전쟁 무기로 활, 창, 몽둥이 등을 사용했다. 그 중 대표적인 무기인 몽둥이를 그들은 macana(마까나)라고 불렀고, 아래 사진과 그림처럼 몽둥이에 날카로운 흑요석을 끼워서 만든 무기를 macahuitl(막까기틀)이라고 불렀다¹⁶⁾.



아스텍의 이 무기의 명칭을 우리말 형태소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소 구조가 나온다.

$$\text{macahuitl} = \text{마}(\text{ma}) + \text{까}(\text{ca}) + \text{기}(\text{hui}) + \text{틀}(\text{tl}) = \text{막 까 기 틀}$$

- a) ma(마): 부사 '막'. 받침은 생략됨
- b) ca(까): 동사 '까다'의 어간.
- c) hui(기): 명사화 접사
- d) tl(틀): 우리말에서 많은 생활 도구를 '틀'이라고 불렀다: 가마니틀, 돛자리틀, 틀,
- e) Macahuitl (막까기틀)의 뜻: 막 까기 틀, 즉, 막 까는(두들겨 패는) 도구

이 분석에서, ma(마)는 우리말 부사 '막'에 해당한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스페인어는 받침소리를 표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ㄱ'은 표기되지 못하고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문헌에서는 드물게 받침소리 'ㄱ'을 살려서 maccahuitl이라고 표기했다¹⁷⁾. 이 표기의 형

16) 아스텍에서는 활촉이나 칼날, 침으로 흑요석을 매우 많이 사용했다. 브로단스키에 따르면 두만강 유역에서 흑요석을 매우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브로단스키, 『연해주의 고고학』, 정석배역, 297쪽

17) Champman, Anne M.(1959), 『La guerra de los aztecas contra los tepanecas, Raices y consecuencias』, 『Acta anthropologica, Epoca 2, Vol. I, No. 4』, Escuela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Sociedad de alumnos, p. 51.

태소 구성은 mac+cua+hui+tl 이다. Mac은 정확하게 우리말 ‘막’에 해당하고 Cua는 ca이다. Ca(까)는 우리말 동사 ‘까다’의 어간이다. 이 동사는 이 무기의 용도를 고려할 때 ‘두들겨 패다’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말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Hui(기)는 발음에 주의해야 한다. 아메리카 원주민어를 방대하게 연구했던 미국의 언어학자 마우리시오 스와데쉬(Mauricio Swadesh)에 따르면 hui는 [위]로 발음하면 안되고, ‘ㄱ’소리를 넣어서 [기] 또는 [귀]로 발음해야 한다. 그의 설명을 아래에 인용한다¹⁸⁾.

que la *b*, y por tanto debe omitirse en una escritura razonada. La *hu* de *huir* es distinta de la de *huipil* o de *huincha*, tratándose de una simple vocal en el primer caso y de la combinación de una consonante con ella en los otros; como se recomienda la supresión de la *h* muda de cualquier manera, se puede representar el contraste fonético usando solamente *u* en casos como *huir* y *gu* (o *gü*) en *huipil*. El uso de *g* con valores distintos en *gasto* y *gesto* es una

“(스페인어의) *huir*의 *hu*와 (나와들어의) *huipil*이나 *huincha*의 *hu*는 다르다. 자음 *h*는 어떤 경우이든 발음이 되지 않으므로, 그 발음의 차이는 *huir*같은 경우는 *u* [우]로 나타내고, *huipil*에서는 *gu*[구](또는 *gü*[구])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도구의 명칭을 현대 스페인어 발음식으로 [마까위틀]로 읽어서는 안되고, [마끼틀]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는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우리말 고유의 명사화 접사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보다>보기, 먹다>먹기, 수영하다>수영하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말에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명사화 접사이다. 위 명칭에서 hui(기)는 바로 이 명사화 접사를 표기한 것이다. 어미 ‘-기’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우리말의 (들), (뜰), (틀)로 발음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복원과 합치의 원칙에 따라서 ‘틀’로 발음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명칭이 전쟁 무기인 도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무기의 명칭을 우리말의 형태소로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는 정확하게 우리말의 각 형태소의 발음과 뜻에 일치하며, 각 형태소의 결합 방식과 결합된 구조도 우리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렇게 결합된 전체의 뜻도 이 무기의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언어학적인 모든 분석적 측면에서 일치한다는 것은 이 명칭이 우리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명칭을 들으면 이 무기의 용도를 아무런 설명 없이도 깨닫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들어를 연구해 온 수많은 학자들도 이 무기의 명칭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

18) Swadesh, Mauricio(1960), *Estudios sobre Lengua y Cultura*, 『Acta anthropologica 2a, Epoca II-2』,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Comité editorial-Aura Marina Arriola의 6명, p. 52

러한 큰 이해의 차이는 바로 멕시코 원주민들이 우리민족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멕시코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대변해 준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보겠다.

3.2 Patollin[빠톨린](바돌린), <발 돌림>

아래 그림은 아스테카인들이 즐기던 소콰흐-바돌린 (Xocuah-patollin)이라는 놀이다¹⁹⁾.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이 등을 땅에 대고 누워서 두 발을 들어 올리고, 그 발 위에 긴 나무 기둥을 올린 후, 두 발을 이용하여 돌리는 놀이이다.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무 기둥 양 끝에 아이들을 앉히고 돌렸다고도 한다. 이 놀이를 그들은 Xocuah-patollin(소콰흐-바돌린)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놀이 명칭의 뒷부분의 Patollin(바돌린)의 발음이 우리말 ‘발돌림’과 거의 같고, 그림의 설명에 따르면, 그 뜻도 우리말의 뜻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칭도 우리말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태소 구조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 |
|---|
| $\text{patollin} = \text{바(pa)} + \text{돌(tol)} + \text{리(li)} + \text{ㄴ(n)}$ |
|---|

- a) 바(pa): 발
- b) 돌(tol): 동사 ‘돌다’
- c) 리(li): 사역보조어간 ‘리’
- d) ㄴ(n): 명사형 어미 ‘ㄴ’
- e) patolin (바돌린)의 뜻: 발 돌림²⁰⁾.

19) Mena L. Ramon & Jenkins Arriaga, Juan (1930), 『Educación intelectual y física entre los nahuas y mayas precolombinos』, p. 41.

20) 18세기 중엽의 클라비헤로(Clavijero) 신부는 이 어휘를 ‘patolli(바돌리)’라고 기록하고, 그 뜻은 ‘놀이’

이 분석에서, pa(바)는 우리말 ‘밭’을 의미한다. 받침소리 ‘ㄹ’이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했듯이, 스페인어가 받침소리를 표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말 음운현상 중에 연속되는 두 어휘에서 받침소리가 모두 ‘ㄹ’이면 앞의 것이 탈락하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즉 ‘달달이>다달이, 날날이>나날이’의 경우처럼, 위 명칭에서 ‘밭돌(림)>바돌(림)’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놀이 명칭에는 우리말 고유의 사역동사 보조어간인 ‘리’가 사용되었다. 자동사인 ‘돌(다)’의 어간에 사역 보조어간인 ‘리’가 첨가되어 타동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 고유의 언어적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동사를 명사화하는 명사형 어미는 우리말에서는 ‘ㄱ’을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가다>감, 공부하다>공부함, 자다>잠’ 등처럼 매우 흔하다. 그런데 위 명칭에서는 ‘n(ㄴ)’으로 이 명사형 어미를 표기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살던 만주지역에서 자음 ‘ㄱ’을 ‘ㄴ’처럼 발음했던 증거가 있다. 만주의 ‘길림(吉林)’을 만주지역에서는 지금도 ‘지린[jilin]’으로 발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명은 그 발음이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발음이 고대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발음일 가능성이 높다. 나와들어 놀이 명칭에서 각 형태소의 결합 방식, 즉 통사 구조적 결합 방식도 정확하게 우리말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명칭을 들으면 이 놀이가 어떻게 하는 놀이인지 아무런 설명 없이도 깨닫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들어를 연구해 온 수많은 학자들도 이 놀이의 명칭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주40>에서 지적했듯이 대략적으로 유추하여, ‘놀이, 오락’ 혹은 ‘놀이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 또는 행운의 놀이’라고 설명했다. 멕이코 원주민 언어의 해석은, 초기 선교사들부터 이와 같이 사용 환경을 고려한 유추 해석을 함으로써, 수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멕이코 원주민들이 우리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3 Chinampa [치남빠](치남바), <채소 밭>

치남바(chinampa)는 아스텍제국에서 호수나 강물 위에 띄운 ‘채소밭’을 말한다. 이 밭은 지금도 멕이코에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치남바를 만드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다(21).

(juego)’라고 번역했다. 또 19세기의 몰리나(Molina)와 시메온(Simeón)은 ‘놀이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 또는 ‘행운의 놀이’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해석의 오류이다. 그들이 ‘밭돌림’을 ‘오락, 놀이’로 번역한 이유는 어휘 형태소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서, 그림을 보고 유추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18세기에는 어휘 자체도 이미 변화가 생겨서 마지막 자음 ‘n’을 탈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스페인어가 받침소리를 표기하지 못하고, 정복 이후 스페인어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스페인어 발음에 적응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다. 이와 같이 후기의 나와들어는 스페인어 영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나와들어의 실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전 나와들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Construcción del montículo 1, de Terremote Tlalenco (interpretación), *Presente, Pasado y Futuro de las Chinampas*, 1995, p. 49.

이 그림에서 보듯이, 물 위에 긴 나무 기둥을 가로 세로로 서로 겹치도록 묶어서 먼저 ‘틀’을 만든다. 그런데 이 틀을 ‘치나미틀(chinamitl)’이라고 불렀다. 바로 우리말에서 ‘창틀, 문틀, 가마니틀, 돛자리틀’의 ‘틀’과 같은 말이다²²⁾. 우리말에서도 이런 작업을 ‘틀은 만든다, 틀을 짠다’라고 말한다. 이 틀을 다 만든 후에, 그 위에 가는 나뭇가지와 풀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흙을 두껍게 덮어서 밭을 만들었다. 강물이나 호수 위에 떠 있는 밭인 셈이다. 지금의 멕시코시티에 있는 텍스코코 호수나 잘고 호수와 그 주변의 강들은 유속이 느려서 이 밭들이 안정적으로 물 위에 떠 있었고, 멕시코 원주민들은 신대륙 발견 이전부터 이 밭에 옥수수, 콩, 토마토, 고추 등을 비롯한 채소를 경작했다. 이 밭을 치남바(chinampa)라고 불렀다. 이 어휘는 때때로 치남판(chinampan)으로도 기록되어 나온다. 이 명칭을 우리말의 형태소로 보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나뉜다.

chinampa = 치(chi) + 남(nam) + 바(pa)

- a) chi(치) : ‘치’는 주변보다 약간 높은 지역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우리말. (예) 치솟다. 치밀다. 둔치 등에서 사용된 ‘치’와 유사하다.
- b) nam(남): 남새(북한), 채소, 나물
- c) pa(바): 밭
- d) chinampa의 뜻 = (물가의) 약간 높은 채소밭

여기서 chi(치)는 ‘높음’을 의미하는 우리말의 ‘치’와 발음과 뜻이 같은 형태소로 보인다. Nam(남)은 ‘채소’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아직까지 채소를 ‘남새’라고 한다. 특히 우리 민족은 ‘나물’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나물’은 채소를 양념한 물에 섞어서 만든 음식이다.

21) Manuel Pérez Zevallos, Juan(2002), 『Xochimilco ayer 1』, p. 14

22) 쉘리반(Sullivan)은 ‘치나미틀(chinamitl)’을 ‘울타리(fence)’라고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나물’의 ‘나’는 채소를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채소를 ‘남새’라고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나’는 ‘남’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나물’은 ‘남+물’의 합성어일 가능성이 있다²³⁾.

그리고 보다 중요한 어휘는 pa이다. 이 어휘는 우리말 발음으로 (바), (빠), (파)에 해당한다. 이 어휘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Simeón사전의 설명을 보기로 한다.

chinampa s. (Clav.). Especie de jardines flotantes sobre los lagos de *Tetzcuco* y de *Chalco*, donde se cultivaban flores y legumbres; descansaban sobre ramas que formaban balsas <chinampas>. R. *chinamitl*, *pa*.

“치남바 - 텍스코코와 잘고 호수 위에 떠 있는 밭의 일종, 그곳에서 꽃과 채소를 재배한다; 그 밭은 <치남바>라는 뗏목을 만든 나무 가지 위에 얹혀 있다. 치나미틀(chinamitl)과 바(pa)를 참조하십시오.”

pa posp. que algunos autores consideran sinónimo de *pan*. Se une: 1] a los sustan-

“Pa(바)- 일부 학자들은 pan과 동의어로 생각한다.”

Pan은 (반), (뽀), (판)으로 발음된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pa는 pan과 같은 말이다. 필자는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스페인어로 차음 표기된 나와들어에서는 받침소리가 탈락된 경우가 뚜렷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 발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먼저 나와들어의 pa는 pan에서 받침소리 ‘n’이 탈락한 형태이다. 그리고 pan은 우리말의 ‘판’ 또는 ‘밭’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이유는 먼저 발음이 같고, 위에서 보았듯이 뜻도 ‘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말에서 ‘판’과 ‘밭’이 어원이 같은 어휘로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모래밭’과 ‘모래판’은 동의어이다. 또 ‘모판, 들판’의 ‘판’은 ‘밭’과 뜻이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cinampa(치남바)는 원래 chinampan(치남판)으로 이해되고, ‘치남판’은 ‘치남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chinampa의 뜻이 ‘채소밭’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이 어휘가 우리말이라는 것을 아래 어휘 분석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어휘에는 우리말의 고유 특징 중 하나인 뜻 없는 문법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3) 서정범은 『국어어원사전』에서 ‘나물’은 ‘나(채소)+물’의 합성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남새’를 고려하면 ‘남+물’의 합성어일 가능성이 있다.

3.4 Chinamitl치나미틀, <채소(밭) 틀>

우리는 앞에서 chinamitl(치남이틀)이 ‘치남밭’, 즉 ‘채소밭’을 만드는 기본 틀이라는 설명을 보았다. 이 명사를 우리말의 형태소 구조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
|---|
| chinamitl = 치(chi) + 남(nam) + 이(i) + 틀(tl) |
|---|

- a) chi(치) : ‘치’는 앞에서 설명했다.
- b) nam(남): 남새(북한), 채소, 나물
- c) i(이) = 관형격 접사 ‘이’
- d) tl(틀) = 틀
- e) chinamitl의 뜻 = 채소밭 틀

이 어휘의 형태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사 ‘i(이)’이다. 이것은 나와들어와 우리말에 매우 많이 사용되는 관형격 접사이기도 하고, 명사 뒤에 뜻 없이 붙어 사용되는 접사이기도 하다. 이 어휘에서는 선행하는 명사 nam(남)이 ‘틀’을 수식하도록 하기 위한 관형격 접사로 사용되었다. 나와들어 ‘i(이)’와 우리말의 ‘이’가 정확하게 같은 문법소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성격으로 증명된다.

먼저, 둘 다 앞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 ‘ㅣ’로 끝나면 생략된다. 나와들어 예로는 우리가 앞에서 본 macaquitl(마까기틀)이 있다. 이 말은 형태소 구조가 ‘macaqui(마까기) + tl(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까기’의 마지막 음절이 모음 ‘ㅣ’로 끝나므로, 접사 ‘i(이)’가 생략되었다. 우리말에서도 ‘병지→ 병지 옷’에서 보듯이 생략된다.

둘 째, 앞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ㅣ’가 아닐 때는, 이 접사가 사용된다. 나와들어의 예가 바로 chinamitl(치나미틀)이다. 이 어휘의 형태소 구조는 위에서 본 대로 chinam(치남)과 tl(틀) 사이에 관형격 접사 ‘i(이)’가 사용되었다. 우리말의 예는 매우 흔하다: 갑돌→갑돌이 신, 갑순→갑순이 옷.

셋 째, 모음 ‘이’는 아무런 뜻 없이 나와들어와 우리말에서 명사 어미에 붙어 사용된다. 나와들어의 예도 매우 흔하다.

(1) 나와들어 예

centli(센털이): 센털 +이, 껌질 까기 전의 옥수수

tochitli(토치들이): 토끼들+이

Tlachitli(다치들이): 다치들+이. 아스텍의 격구 놀이, ‘다 치는 것들’을 뜻함.

(2) 우리말 예

새 이름: 수진이(매), 날진이(매)

사람 이름: 갑식이, 지순이, 은순이, 곰돌이 등 매우 많다.

지명: 서남댕이(영동-설계), 부릉이(용산-부릉), 비암칭이(양산-죽산), 구마이(매곡-수원) 등 매우 많다²⁴⁾.

4. 결론

멕시코 원주민들의 언어로 알려져 있는 나와들어는, 원주민 원래의 발음이 아니라 원주민 말을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페인어화 된 원주민 언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원래의 원주민 말과 스페인어로 기록된 나와들어 사이에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의 나와들어 자료에서 원주민 원래의 발음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원과 합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나와들어와 우리말과 비교 연구할 때 먼저 다루어야 하는, 두 언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소 대응 관계부터 연구하였다. 이 대응관계를 통하여 멕시코 원주민들의 발음이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표기될 때, 어떤 모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표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이 두 언어를 비교 연구할 때 왜 형태소 분석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중요성을 예를 통하여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차음하여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원주민 원래 언어에는 우리말처럼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마티니(tlamatini), 따(tla), 타다(tlatla/tata)’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자음과 모음의 음소 대응, 형태소 분석의 중요성, 그리고 원래의 언어에 있었던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을 확인한 후에, 멕시코 원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로서, 대표적인 무기 명칭 하나, 놀이 명칭 하나, 그리고 채소를 재배하던 밭의 명칭을 각각 형태소로 분석하고, 각 형태소를 우리말의 해당 형태소에 대응 비교함으로써, 그 명칭들의 형태소가 뜻과 발음에서 정확하게 우리말 형태소와 일치하며, 형태소 결합에 사용된 문법소도 정확하게 우리의 문법소와 일치하고, 그 형태소와 문법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어휘들의 뜻이 모두 우리말로 해석되는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쟁 무기인 마까나(Macana), 마까기틀(Macahuilt)은 우리말 뜻 그대로, ‘막 두들겨 패는 도구’를 의미하고, 그들이 가장 많이 즐겼던 오락의 명칭인 바돌린(Patollin)도 우리말 ‘밭 돌림’이었으며, 그들이 식물을 재

24) 우리나라 전국 지명에 뜻 없는 접사 ‘이’가 사용된 예가 매우 많다. 지명은 일반적으로 언어 변화에 가장 저항적인 어휘로서, 세월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명에 이 접사가 많은 것은 우리민족의 옛말에 이러한 특징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뜻 없는 접사 ‘이’를 가진 지명의 많은 예를 보려면 다음 연구를 참조 하세요: 성희제, 『지명어의 구성』, 한국 지명학회, 2006, 지명학 연구 12.

배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밭도 우리말 그대로 '밭/판(Pan)'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보았다. 멕시코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치남바(Chinampa)의 남바(Nampa)는 채소밭을 뜻하는 우리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치남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틀을 그들도 치남이틀(Chinamitl)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나와들어의 생활 용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의 고유 문법소인 관형격 접사 'ㄴ(n)', 역시 관형격 접사 '이(i)', 사역보조어간 '리(li)' 등이 그 원주민 언어에서도 정확하게 현재의 우리말에서처럼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거 국어학계에서 우리말과 일본어가 같은 뿌리의 언어인가라는 논의했을 때, 반대 의견을 내었던 학자들의 중요한 근거가 일치하는 문법소가 없다는 논지였음을 감안한다면, 나와들어와 우리말의 문법소 일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의 형태소와 그 결합방식, 그렇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나 구(句)까지, 그리고 문법소까지 정확하게 우리말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우리민족이었다는 것을 언어적 측면에서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필자가 그동안 다른 연구에서 확인했던 상투, 의복, 장신구, 풍습에서 일치와 본 연구의 언어적 일치를 함께 종합하면, 멕시코 원주민들이 우리민족이라는 사실을 언어학적, 민속학적, 의류학적 측면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 간 시기는 빙하기와 같은 아득하게 먼 시대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가 분명하게 형성되었고, 그 모든 것이 매우 발달된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 고대 문헌에 따르면, 우리민족 멕시코족이 아스땅(아사달)을 떠난 것은 기원후 820년이고, 멕시코에 도착한 것은 대략 11세기 초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민족 역사와 세계사는 다시 써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득황. (1995). *만주족의 언어*. 서울: 대지문화사.
- 김방한. (1980). 원시 한반도어. *동아문화*, 17집. 1-25.
- 박영규. (2009). *한권으로 읽는 고구려 왕조실록*. 서울: 웅진출판사.
- 방중현. (1932). 「티」와 「치」에 대한 생각 일편. *조선어문학회보* 제 3호, 12-15.
- 브로드스키. 데. 엘. (1996). *연해주와 고고학*. 정석배 역. 서울: 학연문화사.
- 서정범. (2000). *국어어원사전*. 서울: 도서출판 보고서.
- 성희제. (2006). 지명어의 구성. *지명학 연구* 12호, 129-156.
- 손성태. (2008). 민족의 이동 -아메리카로 건너 간 우리민족의 언어적 증거. 시베리아 고아시

- 아인종의 후에, 한민족의 파장(아메리카 대륙까지. 2008년 6월 9일. *배재대 한국-시베리카센터 2008년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배재대. 18-36.
- 손성태. (2009). *Qué relación hay entre los aztecas y los coreanos?, la comparación de las costumbres de la vida cotidiana y de la religión, y algunas pruebas arqueológicas*.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09년 겨울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185-199.
- 손성태. (2009a). 아스테카인의 탄생, 육아 및 장례 문화, *비교민속학회*, 제 39집, 183-223.
- 손성태. (2009b). 아스텍의 역사 제도 풍습 및 지명에 나타나는 우리말 연구. *스페인·라틴 아메리카 연구*, 제 2권, 1-54.
- 손성태. (2010). 아스텍 제국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풍습. *비교민속학*, 제 43집, 299-347.
- 손성태. (2010). 아스텍의 일상생활, 지명, 제도 속의 우리말 연구(1). *2010년 한국스페인어문학회 겨울학회 발표 자료집*, 247-258.
- 이병선. (1976). 주격조사-고대국어 주격조사와 '가'의 발달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45.
- 최명옥. (2004). *국어 음운론*. 서울: 태학사.
- Anderson, A. (1992). *Rules of the Aztec language*. University of Utah Press.
- Carochi, H. (1983). *Arte de la lengua mexicana*. México. UNAM impreso, [1645년 본]
- Champman, A. M. (1959). La guerra de los aztecas contra los tepanecas, Raices y consecuencias. *Acta anthropologica, Epoca 2*, Vol. I, No. 4. México. Escuela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Sociedad de alumnos impreso.
- Clavijero, X. F. (1974). *Reglas de la lengua mexicana con un vocabulario*. México. UNAM(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impreso. [18세기 문헌]
- Dolores, R. (1984). *Códice de Cuauhtemoc, Biografía*. México. Editorial Orion.
- Mena, L. R., & Jenkins, A. J. (1930). *Educación intelectual y física entre los nahuas y mayas precolombinos*. México. México-1930 impreso.
- P. Benson, E. (Ed.). (1984). *Ritual human sacrifice in Mesoamerica: A conference at Dumbarton Oaks, October 13th and 14th*. U.S.A. Dumbarton Oaks Press.
- Pérez Zevallos, J. M. (2002). *Xochimilco Ayer 1*. Mé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Dr. José María Luis Mora impreso.
- Quilis, A. & Fernández, J. A. (1964). *Curso de Fonética y Fonología Españolas*. España.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impreso.
- Sahagún, B. (1956).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 U.S.A. Edición del Editorial Porrúa, S.A. [16세기 문헌]
- Siméon, R. (1999). *Diccionario de la lengua náhuatl o mexicana*. México. Siglo

Veintiuno impreso.

Spence, L. F.R.A.I. (1920). *The Myths of Mexico & Peru*. George G. & Co., Ltd. Press.

Sullivan, T. D. (1988). *Thelma D. Sullivan's compendium of Nahuatl Grammar*. University of Utah Press.

Swadesh, M. (1960). Estudios sobre Lengua y Cultura. *Acta anthropologica 2a, Epoca II-2*. Comité editorial.

Winfield Capitaine, F. (1992). *México Prehispánico*. México. Ciencia y Cultura Latinoamérica S.A. impreso.

저자 미상. (1984)., *Codex Mendoza*. U.S.A. Productions Liber, S.A. Frances F. Berdan & Patricia Rieff Anawalt Ed. [16세기 전반기 문헌]

손성태(Son, Sung-Tae)

배재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전화: (042) 520-5648, 010-9230-2367

이메일: stson@pcu.ac.kr

Received on 4 July,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1 September, 2011

Accepted on 1 September, 2011